

Kant에 있어서 理念의 Realität에 대한 純粹理性의 誤謬推理

金聖麟*

.....◇ 目 次 ◇.....	
序論	2) 第三의 二律背反
第一章 先驗的 論過	3) 第四의 二律背反
1. 靈魂의 實體性	第三章 純粹理性의 理想
2. 靈魂의 單純性	1. 理想으로서의 神
3. 靈魂의 人格性	2. 神의 存在證明
第二章 純粹理性의 二律背反	1) 存在論의 證明
1. 宇宙論的 理念	2) 宇宙論的 證明
2. 二律背反의 種類	3) 自然神學的 證明
3. 二律背反의 解消	結論
1) 第一·二의 二律背反	

序論

Kant에 의하면 經驗(Erfahrung)은 단지 直觀되고 判断됨으로 完結되는것이 아니고 推論에
의하여 絶對的 全體(das Absolute Ganze)로 統一되어야한다.¹⁾ 그때 感性은 直觀의 能力이
고 悅性은 判断의 能力인데 대하여 理性은 推論의 能力이다.

感性과 悅性의 綜合을 통하여 經驗一般의 實質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全體로 統一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次元의 能力이 요구된다. Kant는 이러한 統一의 能力を 原理의 能力(das
Vermögen der Prinzipien)으로서의 理性의 能力이라 한다.²⁾

*教授

- 1)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383,
- 2) *Ibid.*, B.336.

悟性의超越的使用에서純粹悟性概念즉範疇가이끌려나온것처럼理性의超越的使用에서純粹理性概念이이끌려나온다.Kant는이것을理念(Idee)³⁾이라고불렀다.

悟性概念으로서의範疇는직접적으로經驗的對象에관계하지만理性은간접적으로悟性概念에대해서만作用할수있다.

그리하여전자에의하여現象界的悟性的統一(die Verstandeseinheit der Erscheinungen)이成立되며후자에의하여理性的統一(die Vernunftseinheit)이成立된다.⁴⁾

理性의能力은이미言及한바와같이어디까지나推論의能力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理性이經驗界를絕對的全體(das Absolute Ganze)⁵⁾로統一하려하는데서理念이생긴다.

Kant에의하면理念에는三種類가있으니靈魂과世界와神이다.

理念이란元來가制約의全體즉無制約者를追求하는데서成立되는理性concept이기때문에그實在性(Realität)은經驗界에서完結되는推論이아니고無制約者를追求하여無限이遡源하여가는動的인推論의過程인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理念이對象의으로주어졌다.(gegeben)고생각하는데서超越的假象(transzendentaler Schein)⁶⁾이생긴다.

Kant는‘純粹理性批判’(Kritik der reinen Vernunft)의‘先驗的辨證論’(transzendentale Dialektik)에서先驗的假象性을暴露함으로理念의實在性이理論理性의領域에서는결코證明될수없다는事實을論證하려한다.

이論文에서는純粹理性를통하여理念의實在性을證明하려고할때빠져들어갈수밖에없는理性의誤謬推論에대하여고찰하고자한다.

第一章에서는思惟主體로서의靈魂의實在性에대한理性의誤謬推論인‘先驗的論過’(transzendentaler Paralogismus)에대하여,第二章에서는現象系列의絕對的統一을推論하는데서일어나는‘純粹理性의二律背反’(Antinomie der reinen Vernunft)에대하여第三章에서는모든存在의存在(Wesen aller Wesen)로서의神의實在性에대한誤謬推論로서‘純粹理性의理想’(Ideal der reinen Vernunft)⁷⁾에대하여각각고찰하겠다.

第一章 先驗的論過

Kant以前의傳統的인心理學에서는人間의意識作用으로서의自我(Ich)를實體로간주함으로實體의形而上學을體系지우려했다. Descartes에있어서意識作用(Cogitatio)이目標하

3)理性은推論의能力이다.推論은概念相互간의관계에서成立되기때문에推論의종류는定言의理性推論,選言의理性推論으로限定된다.따라서理念에도主體에대한定言의綜合,系列의諸項의假言의綜合,體系에있어서部分의選言의綜合의無制約의인것즉合理的的心理學의對象으로서의靈魂과合理的宇宙論의대상으로서世界와合理的神學의對象으로서神의세가지가있다.B.361,397.

4) Ibid., B.359.

5) Ibid., B.383.

6)超越的假象이란우리의‘主觀的인原則에기인하는自然의이고도不可避한錯覺’(A298, B354)으로서그것이錯覺이란사실이暴露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錯覺으로남게되는錯覺이다.Kant는이러한假象을論理的假象및經驗的假象과區別하였다.

7) Ibid., A.340, B.398.

는것은‘事物의本性’(Natur der Ding)이었다.그는實體에대하여定義하기를“存在하기위하여다른어떤것도필요로하지않는方式으로存在하는것”(res, quae ita existet ut nulla alia re indigeat ad extendum)⁸⁾이라했다.이러한實體의concept속에는단지實體의形式에대한물음뿐만아니고實體의根柢에대하여도묻고있는것이다.Descartes에의하면存在하는것은神에의하여創造되었기때문에마땅히神이라하는唯一의實體가實在해야한다는것이다.

Leibniz에있어서實體는活動하는‘Monade’였고,Wolff와그의學派에있어서는人間의靈魂의實在性을認定함으로靈魂의屬性에서그實在性을推論하려하였다.이들은靈魂의實在性뿐만아니고그不壞性,非物質性,不滅性까지도推論의方法으로證明하려하였다.저들은自我즉靈魂을人格의진정한核心으로봄으로近世合理論의人間學의基礎를定立했던것이다.⁹⁾

Descartes의“Cogito ergo sum”에서시작되는近世哲學의中心의인課題가운데하나는疑心할나위없이이自我의問題였다.Heidegger는Descartes以後의哲學을‘主觀性의哲學’(Philosophie der Subjektivität)이라했으며Schulz는Descartes以後現在에이르기까지의모든哲學을‘內在性의哲學’(Philosophie der Innerlichkeit)이라했다.

自我의把握의深化아발로독일觀念論의體系를啓蒙主義의哲學과區別지워주는중요한契機가되는것이다.

近世以後의自我概念의發展과深化의過程에있어서하나의轉換point를이룩한것이Kant의先驗哲學이라하겠다.

悟性에서理性으로,理性에서精神으로自我가發展하며深化되어가는契機가어떻게가능하게되었는가?그것은Kant自身이Copernicus의轉換이라고불렸던method論을통해서였다.

Platon,Aristoteles,Kant에이르기까지의모든哲學은存在는自我밖에있었다.즉對象性은悟性的認識의彼岸에놓여있었다.

Kant는自我가自然으로부터法則을發見하는것이아니고,반대로自我가自然에대하여法則을賦與하는것으로생각했다.그리하여自我의論理의機能인悟性의範疇가直觀形式에주어진對象을規定함으로認識이成立된다.

自我主觀이對象을產出하지는못하지만그러나對象에範疇를적용시킴으로秩序를賦與하는것은바로人間의主觀인것이다.

여기에自然에대한自我의優位가認定됨으로단순한意識의입장에서精神의입장으로의推移가이루어진다.

Kant에의하면自我는원래理論的일뿐만아니고實踐的인것이다.따라서自我의把握도理論에서떠나지않고實踐의領域으로나가야한다.自我는Kant에의하면實體(Substanz)

8) Descartes, *Principia Philosophiae*, 1644, I. 51.

9)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II. S. 277.

가 아니고 主體(Subjekt)인 것이다. 合理的 心理學에서는 自我를 實體로 간주한 나머지 道德的 實踐의 主體로서가 아닌 形而上學의 思辨의 對象으로 把握하려 한데서 誤謬에 빠진 것이다.

'先驗的 論過'는 단순히 'Ich denke'라는 概念내지 判断에서 출발하여 思惟主體로서의 自我 즉 '靈魂' (Seele)이라는 實體를 想定하고, 이 '靈魂'에 대하여 先驗的으로 範疇들을 적용시키는데서 起起되는 誤謬다.

'Ich denke'란 自覺, 意識一般, 純粹統覺등으로 불려지는 概念이자 동시에 概念一般의 車輛(Vehikel)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나 範疇에 内包되어 있으므로해서 思惟를 意識에 屬하도록 해주는 任務를 뛴다. (Er nur dazu dient, alles Denken, als zum Bewusstsein gehörig, aufzuhührren)¹⁰⁾

合理的 心理學의 唯一의 主題는 灵魂이며 거기에다가 悅性의 範疇를 적용시킨 결과, Seele는 實體며 質的으로 單純하며 數的으로 단일하며 空間的으로 可能한 對象과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判断을 하게 된다. 그 결과 灵魂에 대하여 非物質性(Immaterialität), 비腐蝕性(INKorruptibilität), 人格性(Personalität), 精神性(Spiritualität)의 概念을 賦與하게 된다.

空間에 있어서 對象에 대한 灵魂의 관계는 物體(Körper)와의 交通性(Kommerzium)이라는 概念을 形成한다. 그리하여 合理的 心理學에서는 思惟의 實體를 物質的인 生動性(Animalität)의 基本이 되는 마음(anima)으로 表象한다.

이 生動性이 精神性에 의하여 制限되는데서 不滅性(Immortalität)의 概念이 成立된다.¹¹⁾

그러면 先驗的 誤謬推理에 대한 Kant의 反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實體性

"主語 (Subjekt)로서 밖에 思惟될 수 없는 것은 또한 主語로서 밖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實體다"¹²⁾라고 合理的 心理學에서는 주장한다.

Kant의 反駁: 大前提에 있어서의 主語는 直觀의 内容이 賦與된 主語이기 때문에 實體의 範疇가 적용될 수 있지만 小前提에 있어서의 主語는 内容이 없는 論理的 主語이기 때문에 前者와 區別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結論에서는 兩者가 混同되어 있다. 따라서 中概念 多義性的 誤謬를 범하고 있다.

요컨대 思惟主體로서의 論理的 主語를 實在的 主語 즉 實體로 判断하는데서 일어나는 誤謬인 것이다.

2. 單純性

"그 活動이 活動하는 事物의 連合으로 보여질 수 없는 事物은 單純하다. 思惟하는 自找로서의 灵魂은 그러하다. 따라서 灵魂은 單純하다"고 合理的 心理學에서는 주장한다.

Kant의 反駁: 'Ich denke'라는 先驗的 統覺의 形式的인 命題를 기초로하여 自我를 單純한 實體로 规定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理由는 思惟主體로서의 自我를 單純하다고 말하는 것은

10) Ibid., S. B. 399.

11) Ibid., S. A. 345, B. 403.

12) Ibid., B. 410-411.

表象이 多義性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論理的으로 단일하다는 事實以上の 것은 意味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自我를 단순한 實體라고 推論하기 때문이다.¹³⁾

3. 人格性

"서로 다른 時間에 있어서 自己의 數的同一性을 意識하고 있는 存在는 人格(Person)이다. 灵魂은 그려한 것이다. 따라서 灵魂은 人格이다."

Kant의 反駁: 우리의 意識에서 不可避의로 發見되는 人格의同一性은 'Ich denke'라는 사설의 論理的同一性으로서 나의 思考의 形式的制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我자신의 客觀的持續性(objektive Beharrlichkeit)¹⁴⁾을 推論할 수 없다.

人格의同一性을 證明하기 위해서는 直觀에 基礎하는 綜合判断이 必要한 것이다.

以上의 第一, 第二, 第三 誤謬에 대한 Kant의 批判을 살펴볼 때 誤謬의 根本은 'Ich denke'라는 先驗的 統覺의 論理的命題에서 發起하여 그것을 客觀的 存在者인 實體로 생각하여 한데 있음을 알 수 있다. 自我란 언제나 思惟에 있어서 主語가 될 뿐 對象이 될 수 없다. 우리가 思惟主體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表象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떤 外的 經驗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内的 自覺에서 오는 것이다. 즉 自我가 自己를 對象으로 表象하는 것은 自己가 自己에 있어서 反省의로自己를 對象으로 한다는 自覺의構造에 基因하는 것이다.¹⁵⁾

論理의 意味에서 自我를 實體로 생각할 수도 있고 質的으로 單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數的으로 同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實在의 意味에서 自我를 客觀의 實體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Ich denke'로서의 自我是 經驗의認識을 自覺에 있어서 反省할 때, 思惟의 内容에 수반하여 表象되는 單純한 論理的 기능일 뿐이지만 그려면서도 自我의 概念이 없이는 어떤 先驗的 綜合判断도 나아가서는 經驗의認識까지도 不可能한 主觀의 先驗的 概念 즉 理念이기 때문이다.

理念으로서의 自我是 判断에서 範疇의 관계를 限定하는 主語이지 그 自身이 判断의 對象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自我是 客體로서 自己存在者 또는 實體(Bestehendes Wesen oder Substanz)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理性 그 自體안에 無制約者로서의 灵魂이라는 先驗의 理念이 存在하여 先驗의 理念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모든 種類의 範疇(實體·質量·樣相)를 經驗을 超越해 있는 無制約者에게 적용하게 된다. 우리가 先驗的 誤謬推理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認識活動이 經驗의範圍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기에 理論認識의 限界性이 있다. 적어도 理論理性의 領域에서는 灵魂의 實在性은 證明될 수 없다. 그리하여 理念의 實在性에 대한 證明은 實踐理性의 領域으로 移行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先驗的 誤謬推理에서 論證된 셈이다.

第四의 誤謬推理는 Kant의 觀念論에 대한 論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本文에서는 省略하고 純粹理性의 두 번째 誤謬推理인 理性的二律背反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13) Ibid., S. A. 355.

14) Ibid., B. 409.

15) 今谷逸之助著, カント純粹理性批判研究, p. 122.

第二章 純粹理性의 二律背反

1. 宇宙論의 理念

宇宙論의 理念은 理性의 假言的 推理에 의하여 現象의 系列의 制約의 절대적 統一을追求하는데서 起起되는 先驗的 假象이다. 先驗的 誤謬推理가 主觀의 절대적 統一를追求한데 대하여 宇宙論의 理念은 現象으로서의 客觀의 절대적 統一를追求한다. 그結果 理性은 “自己의 要求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矛盾에 빠지고 만다.”¹⁶⁾

Winderband에 의하면 “宇宙가 認識의 對象으로 다루어짐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現象系列의 完結을追求하는 感性的인 直觀의 要求에 따르는限 서로 矛盾되는 두개의 命題가 同等한 權利로 主張되는 것은”¹⁷⁾ 不可避한 일이라는 것이다.

Kant는 종래의 宇宙論을 批判함에 있어서 悅性概念은 感覺의 世界의 範圍안에서 可能한 經驗의 世界에 奉仕해야하며 理性 역시 先驗的인 意味에서만 使用되어야 한다는 自身의 根本命題에 立脚해 있는 것이다.¹⁸⁾

理念이란 元來가 無制約者에까지 확대된 理性概念이지만 人間의 理性은 範疇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範疇를 超越하여 理性的 統一를追求하여 마지않는다. 이때 理性的 統一을 賦課(aufgegeben)된 課題로 보지않고 受與(gegeben)된 實在로 보는데서 宇宙論의 理念이 成立된다.¹⁹⁾

宇宙論의 理念의 二律背反에는 다음의 四種類가 있다.

- (1) 주어진 現象의 全體의 結合(Zusammensetzung)으로서의 世界의 時間의 시작과 空間의 限界의 문제.
- (2) 주어진 現象에 있어서의 全體의 分割(Teilung)의 절대적 完全性.
- (3) 現象의 生起(Entstehung)의 절대적 完全性.
- (4) 現存在의 依存性의 根拠의 절대적 完全性으로서의 절대적 必然性²⁰⁾

2. 二律背反의 種類

以上의 四種類의 宇宙論의 理念에 의하여 理性은 無制約者를追求하여 간다.

Kant에 의하면 이 경우 無制約者는 두가지 方式으로 생각될 수 있다. 첫째는 “無制約者는 단적으로 全系列의 内部에서만 成立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系列의 制約를追求하여 無限히 背進해도 無制約의 第一項에 到達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系列은 無限하여 完結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無制約者를 系列의 다른 모든 項이 거기에 從屬하지만 그自身은 어

16) Ibid., S. A. 407. B. 433.

17) W. Winderband, Geschichte der Philosophie, S. 59.

18) 종래의 合理論의 宇宙論에서는 對象이 主觀的, 精神的 判断形式에 따라 規定되지 않고 主觀을 떠나서 物自體로 實在한다고 볼으로 現象을超越的 意味로 해석하는데 결谬이 있다고 Kant는 비판한다.

19) Kritik der reinen Vernunft, B. 450.

20) Ibid., B. 443-444.

면 系列의 制約 아래도 있지 않고 생각한다. 따라서 系列가운데는 無制約的第一項이 없기 때문에 系列은 完結的인 것이 된다. 이 系列의 第一項이란 時間관계에서는 世界의 始作(Weltanfang), 空間關係에서는 世界의 限界(Weltgrenze), 部分의 관계에서는 單純한 것(das Einfache), 原因性의 관계에서는 自己活動(absolute Selbstdtigkeit), 變化的인 事物의 存在에 관해서는 絶對的 自然必然性(abolsute Naturnotwendigkeit)이다. 無制約者에 대한 이와같은 두가지 思考方式에 의하여 宇宙論의 理念에 대한 서로 對立되는 두개의 命題가 成立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四種類의 二律背反이 발생한다.

- (1) 定立: 世界는 時間의으로 始作이 있고 空間의으로 限界가 있다.
反定立: 世界는 時間의으로 시작이 없고 空間의으로 無限하다.
- (2) 定立: 世界에 있어서의 모든 實體는 單純한 部分으로 成立된다. 즉 實在하는 모든 것은 單純한 것이거나 單純한 것으로 合成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反定立: 世界에 있어서 合成된 事物은 單純한 部分에 의하여 成立되지 않는다. 그리고 世界에는 單純한 것은 實在하지 않는다.
- (3) 定立: 自然의 法則에 의한 因果性은 世界의 現象이 全體로서 거기에 基礎하여 導出될 수 있는 唯一의 因果性이 아니다. 現象을 說明하기 위하여 自由에 의한 因果性을 인정할 必要가 있다.
反定立: 世界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다만 自然의 諸法則에 따라서 生起하며 따라서 自由는 없다.
- (4) 定立: 世界는 그 部分으로서 아니면 그 原因으로서 절대로 必然的인 存在者를 갖는다.
反定立: 절대로 必然的인 存在者는 世界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原因으로서 實在하지 않는다.²¹⁾

3. 二律背反의 解消

1) 第一・二 二律背反의 解消

Hirschberger에 의하면 第一, 二律背反과 第二 二律背反은 간단하게 空間・時間의 世界의 外・內에의 有限性, 無限性으로 換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nt自身도 이것을 數學的 問題라고 부른다.

第三의 二律背反에서 世界는 存在함에 있어서 條件지워져 있는가? 즉 原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할 때 世界는 無條件의으로 實在하는가?의 問題를 取扱한다.

Kant는 第一, 第二의 二律背反의 命題와 反命題가 다 같이 잘못되었다고 論證함으로써 第三의 二律背反의 問題를 解消한다. 그러면 왜 잘못되었는가?

Kant는 實在的인 例를 들면서 說明한다. 空間과 時間에 있어서 外・內의 無限한 世界가 있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自己가 여태껏 본적이 없는 무엇을 主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21) Ibid., S. B. 454-456.

려한 直觀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反對로 空間的 時間的 世界가 안으로 또는 밖으로 有限하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사실은 不可能한 것을 主張하고 있다. 왜냐하면 空間과 時間을 限定할 수 있기 위하여는 또 다른 空間과 時間이 必要하기 때문이다.²²⁾

第一 二律背反의 命題와 反命題의 限本誤謬는 全體로서의 世界概念 즉 理念을 마치 經驗的 直觀속에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있다. 全體로서의 世界는 世界中에 있는 直觀的 對象처럼 우리의 直觀에 주어져 있지 않다. 그와는 달리 世界는 우리에게 課題로 賦課(aufgegeben) 되는 것이다. 世界는 全體的 直觀에서 주어지는 것(gegeben)이 아니고 探求의 過程에 수반되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全體로서의 世界는 空間的으로나 時間의으로 限定되는 對象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無限定者다. 世界가 有限한가? 無限한가? 無限이 分割이 可能한가? 分割이 可能하지 않는가? 世界는 始終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물음은 日常生活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質問이다. 그러나 Kant에 의하면 이러한 물음은 잘못된 前提에서 나온 질문이다. 왜냐하면 世界는 理念에 지나지 않으며 全體로서의 世界는 直觀的 對象으로 經驗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엇이라고 判断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³⁾

2) 第三의 二律背反의 解消

先驗的인 理性을 使用함으로 Kant는 自由와 必然의 矛盾이라는 第三의 二律背反을 解消하려 한다.

Kant에 의하면 現象界는 因果性의 範疇에 의하여 規定된 必然의 世界다. 이 必然是 不可觸의이며²⁴⁾ 普偏의인 法則이며 經驗一般의 基礎가 되는 法則이다.

生起하는 모든 것은 原因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原因의 因果性도 또한 原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經驗的 世界的 모든 領域은 自然이라는 極限概念으로 바꾸어질 뿐만 아니라,²⁵⁾ 충분한 原因을 要求하여 無限히 소원하는 因果律의 本性과도 矛盾된다. 그리하여 “自然의 法則에 따라 경과하는 現象의 系列를 스스로 開始하는 原因의 絶對的 自發性, 즉 超越的 自由(transzendentale Freiheit)가 要求되지 않을 수가 없다.”²⁶⁾ 이와같이하여 世界의 經過內에서 스스로 因果의 系列를 시작할 수 있는 超越的 自由가 認定되며 이 超越的 自由는 實踐的 自由(praktische Freiheit)의 可能의 根據가 된다.

Kant에 의하면 自然뿐만 아니고 人間역시 空間的 時間的 現象界에 사는 限 人間의 모든 行為는 現象으로서 “自然法則에 따라서 다른 現象과 연관되며 行為의 條件으로서 그러한 現象에서 導出되며 그것들과 結合하면서 自然法則의 秩序의 唯一한 系列의 한 項을 形成한다.”²⁷⁾

그리하여 人間의 經驗的 性格은 因果的으로 决定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할 것은 Ka-

22) Ibid., S. 281.

23) Ibid., 282.

24) B. 564.

25) B. 561.

26) B. 475.

27) B. 561.

nt의 範疇論에 의하면 自然에는 自由를 發見할 수 없다는 点이다.²⁸⁾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存在者는 各者의 獨自的 法則에 따라서 評價되어야 할 層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因果決定性이라는 하나의 빗으로 빗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明白하게 되었다.²⁹⁾

自然科學의 學的 定礎뿐만 아니라 實踐的 形而上學의 定礎를 위해서는 倫理的 自由가 認定되어야 한다. 自然이 自由에 의한 因果性과 적어도 矛盾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解釋 해야만 한다.

Kant에 의하면 “自由란 意志의 自由로서 消極的으로는 感性의 衝動에 의한 強制로부터 獨立하는 것이고 積極的으로는 自然의 인 諸原因과는 無關하게 自然의 強制力에 逆行하면서 時間의 秩序에 있어서 經驗的 法則에 따라 規定되는 어떤 것을 產出하며 나아가서 事件의 系列을 自發的으로 시작하는 能力 또는 因果性”³⁰⁾이라고 定義한다. 이러한 自由에 의하여 人間은 行為의 原因으로써 因果系列과 그 决定性의 밖에 있는 原因을 가지게 된다.³¹⁾

Kant는 이러한 自發性의 能力を ‘可想的 性格’ (Kant heißt jenes Vermögen den intelligiblen Charakter.)³²⁾ 이라 했다. 이 ‘可想的 性格’ 으로해서 理性은 可能한 經驗의 限界를 넘어서 ‘可想的 原因’(intelligiblen Ursache)과 조우하여 ‘本體的인 것’ (Noumenalen) 및 物自體(Ding an sich)의 領域안에서 活動하게 된다.³³⁾

이렇게해서 第三의 二律背反을 解消할 수 있다고 믿었던 Kant는 더 나아가서 두 命題(定立과 反定立)가 다 眞理라고 言明한다. 다시 말하면 命題는 可想界에 反命題는 現象界에 관連시킴으로 自由와 必然을 調和시키려 한다.

사람은 現象界에 속하면서 同時에 可想界에 속한다. 따라서 同一한 事件 또는 行為가 現象界에 있어서는 因果的으로 必然이지만 可想界에 있어서는 自由인 것이다.

즉 可想的 原因에 의하여 行해지는 行為는 自由의 行為다. 그러나 이 可想的 原因은 認識할 수 없고 다만 하나의 보편概念으로서 思惟될 뿐이다. 理性은 完全한 自發性을 가지고 理念에 의한 獨自의 秩序를 만들고 이 秩序에 經驗的 條件을 부과한다. 그리하여 “나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로 나는 할 수 있다.”³⁴⁾라는 當爲(Sollen)가 可能하게 된다.

“當爲의 必然은 因果的 决定의 必然性”³⁵⁾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現象界 안에서 일어나는

28) Ibid. 283.

29) Kant의 이러한 自然觀의 思想史的 背景은 近世의 機械論의 思考와 Spinoza 因果性의 連鎖와 Newton의 절 대화에 있다. 自然이 蓋然性의 性格을 가짐으로 類推의으로 自由를 認定할 수 있다는 思想은 Hume에 의한 것이다. Hirschberger, 283.

30) B. 561.

31) B. 565, 580.

32) B. 566. Hirschberger cit.

33) Ibid.

34) Hirschberger, cit.

35) B. 575.

因果의 必然的 系列과 그 秩序에 따르지 않고 理性의 自發性에 의한 새로운 事件을 시작하는 可想的 必然性이다.

第一, 第二의 二律背反에서 Kant는 命題와 反命題가 다 같이 잘못된前提에서 提出된 것이라하여 이를 다 拒否했다.

第三의 二律背反에서는 命題는 可想界에, 反命題는 感性界에 서로 領域을 달리함으로 그 妥當性을 認定한다.

人間의 行爲가 經驗의 原因에 의하여 規定되지 않고 理性의 自發性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理性의 理念이 現象界에 속하면서 同時에 可想界에 속해있는 人間의 行爲의 진정한 因果性이 된다.

實踐의 自由는 意志의 決意가 感性의 衝動에 의한 強制로부터 獨立하는데 있다. (Die Freiheit im praktischen Nötigung durch Antriebe der Sinnlichkeit)³⁶⁾ 人間의 決意는 感性的 決意(arbitrium brutum)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動物的이 아니고 自由(liberum) 인 것은 人間에게는 感性的인 衝動에 의한 強制로부터 獨立하여 自己를 限定할 수 있는 能力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自然과 自由, 感性的 世界와 可想的 世界, 超越的 自由와 實踐的 自由가 서로 結合되는 것을 본다.

自然은 經驗의 可能性에서 純粹悟性概念과 直觀의 多樣과의 綜合에서 構成된다. 自由는 現象界的 因果律의 規制를 받지 않고 스스로 因果의 系列를 시작하는 理性의 自發性에 의하여 成立된다. 世界는 理性概念인 理念에 있어서 現象의 總體로서 統制된다. 거기에는 理性이 自然 그 自體가 아닌 悟性概念 그 自體를 綜合하기 때문에 人格的 統一의 方向으로 接近한다. 超越的 自由의 理念에 이르러서는 可想的 世界와 接觸하게 되며 이 自由를前提로하여 實踐的 自由가 導出된다.

그러나 Kant가 여기서 分明히하고 있는 点은 先驗的 自由는 「理念」이기 때문에 認識論의 通过實在性을 論證할 수 없는 無制約者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認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思惟되어져야하는 것이다.³⁷⁾

先驗的 自由의 客觀的 實在性이 證明되는 領域은 理論理性의 領域이 아니고 實踐理性의 領域이다. 實踐의 領域에서 實踐的 自由의 實在性이 證明될 때 비로서 先驗的 自由와 나아가서 全體로서의 世界理念의 實體性도 實踐的으로 證明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3) 第四의 二律背反의 解消

第三의 二律背反에서 Kant는 自由와 必然性의 矛盾을 解消하기 위하여 超越的 自由를 假定했고 이것을 기초로해서 實踐的 自由를 이끌어 냈다.

第四의 二律背反에서는 神의 存在問題와 관계하여 「純粹理性의 理想」에 대하여 論證한다.

36) B. 562.

37) B. 580.

第四의 二律背反의 課題에 대하여 Hirschberger는 “第四의 二律背反에서 우리가 當面하는 課題는 動的問題”³⁸⁾ 라고 했다.

종래의 形而上學에서는 항상 모든 存在는 依存的 存在로서 第一의 無條件的 存在者를前提했다. 그것은 善의 Idea(die Idea des an sich Guten), 不動의 原動者(der ersten unbewegten Beweger), 純粹現實態(actus purus), 第一現勢態(die erste Energeia), 自存的 存在者(ensase), 最現實的 存在(ens realissimum), 最完全者(ens perfectissimum)³⁹⁾ 등으로 불렸다. 한편 經驗論에서는 結果에서 原因을 求하는 推論을 否定하고 意識의 通过現象界에自身을 限定시켰다. Kant는 第四의 二律背反에서 ‘宇宙論의 理念’(der kosmologischen Idca)을 表現함에 있어서 ‘現象에 變化하는 것의 現實的 存在의 依存性의 절대적 完全性’(absoluten Vollständigkeit der Abhängigkeit des Daseins des Veränderlichen in der Erscheinung)⁴⁰⁾ 이란 말을 했다. 이 完全性의 理念은 理性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現象界에서 條件지워진 것의 條件을 물어서 無限이 소급(regressus)해도 無條件의 項에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感性界는 現象以外의 것을 포함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物自體(Dingen an sich)는 感性的 經驗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⁴¹⁾

因果性의 根本命題는 世界 그自體의 内部에만 適用이 될 뿐 全體로서의 世界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合理的 神學에서 추구한 것은 世界 밖에 있는 無條件者 즉 神이었다.

Kant가 始終一貫하여 追求하는 世界는 實踐的 世界다. 만일 經驗論에서처럼 世界의 根源의 存在者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創造者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意志도 自由도 없고 魂도 物質처럼 分割되고 消滅되고 말것이다. 그렇게되면 道德의 理念이나 道德法則의 모든 妥當性도 상실될 것이다.⁴²⁾

第三의 二律背反에서는 必然的 存在者는 世界外 存在者로서 感性界의 밖에 있었으며(ens extramundanum) 따라서 단순한 可想體로서 思惟의 對象으로 認識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絶對者는 종래의 形而上學에서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 實在性이 證明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證明은 現象世界의 内部에 存在하는 것에 대해서만 可能한데 對하여 絶對者 神은 現象의 系列에 예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Kant에 의하면 종래의 形而上學에서는 證明이 不可能 하다는 것이 證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唯物論이나 無神論이 믿고 있는 理論역시 그 妥當性이 證明될 수가 없다. 證明한다는 것은 역시 經驗의 限界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Kant에 의하면 神은 認識할 수는 없지만 理性의 理念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는

38) Hirschberger, S. 287.

39) Hirschberger, S. 287.

40) Ibid., S. 288, B. 443.

41) Ibid., S. 288.

42) B. 496.

43) Hirschberger, cit. B. 590.

두개의 矛盾되는 命題中 正命題가 現象界에, 反命題가 理性概念에 관계한다고 함으로 二律背反을 解消하려 했다.

第四의 二律背反에서는 論理的으로 神의 存在를 證明할 수 없다는 事實을 證明하려고 試圖한다. 그렇게 함으로 종래의 合理論의 神學을 根本의 으로 批判한 後 實踐理性의 領域에서 神의 實在性을 요청함으로 Heimsoeta가 解釋한 것처럼 '實踐的 定說的 形而上學' (praktisch dogmatische Metaphysik)의 基礎를 定立하려 했던 것이다.

第三章 純粹理性의 理想

1. 理想으로서의 神

'純粹理性의 理想'은 理性이 選言的 推論에 의한 概念의 分類의 完成을 위하여 그以上 아무 것도 必要로하지 않는 類의 項의 集合을 追求하는데서 成立되는 先驗的 假象이다.⁴⁴⁾ 理性은 思惟一般의 모든 對象의 絶對的 統一을 追求하여 마침내 神이라는 絶對者를 想定하게 된다.

宇宙論의 理念이 假言的 推論의 絶對化에 기인한다면 純粹理性의 理想은 神學의 理念이 選言的 推論을 絶對化한데 기인한다고 高坂氏는 解釋하고 있다.⁴⁵⁾

Kant는 純粹理念의 理想을 Platon의 例에 따라 模像의 普偏妥當的 規定의 原型으로 보았다.⁴⁶⁾ 이 理想은 비록 現實的으로 客觀的 實在性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幻想이 아니고 理性의 不可缺의 基準이 된다. 그 理由는 理性은 不完全한 것의 정도나 그 결함을 評價하고 測定하기 위해서는 그 類에 있어서 完全한 것에 대한 概念을 必要로하며 理想이란 바로 모든 것의 完全한 像이기 때문이다.⁴⁷⁾ 例를 들면 倫理的 行爲에다 理想을 관계시키면 諸德은 條件지워진 德이고 理想은 德을 條件지워주는 無條件者다. 또 모든 存在者는 條件지워진 存在이고 理想은 모든 存在者를 條件지워주는 無條件者 즉 神이다. 따라서 Kant에 의하면 神은 '萬物의 原型'(Urbild aller Ding)이며 萬物은 결합이 있는 模像 (mängelhafte Kopien) 으로서 自己의 可能性의 素材를 原型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 어느정도 原型에 接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原型과는 격리되어 있어서 거기에 到達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⁸⁾

그리하여 無條件者로서의 神은 現實性의 全部(Omnitudo)며 存在者의 存在者(ens entium)며 모든 存在의 共同의 基體(Gemeinschaftliches Substratum)가 된다.⁴⁹⁾

Kant는 客觀的인 事物이 空間에 기초하여 成立되는 것처럼 萬物이 거기에 根據하여 存在하는 根源的인 것을 單純·唯一·全充足·永遠·最高의 現實的인 存在 즉 神으로 認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⁵⁰⁾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客觀的인 實在性을 意味하고 있지 않다. 先

44) 岩崎, カント「純粹理性批判」の 研究, p.473

45) 高坂, cit, p. 202.

46) Hirschberger, S. 290.

47) B. 597.

48) B. 606.

49) Hirschberger, S. 290.

50) Hirschberger, op. cit., B. 596.

驗의 理想 역시 理念에 지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것은 理念보다 더욱 實在性과 면 거리에 있다. 理想 그 自體를 現實的인 存在者 또는 物로 보는 것은 단순한 造作에 지나지 않는다고 Kant는 말한다.⁵¹⁾

Kant의 이려한 論證에서 우리는 觀念實存論보다는 經驗論의 영향이 그를 壓倒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Platon의 Idea에서 實在와 現實性을 基礎지워주는 힘을 보지 못한다. Platon에 있어서 Idea는 '物의 原型'(Urbilder der Dinge)이며 最高理想에서 流出하여 人間의 理想에 分有(Zuteilgeworden) 되어 있으며⁵²⁾ 經驗的 認識을 超越하면서도 實在性을 가지는 存在者 중의 存在者 (ὄντως ὄν) 였다. 그러나 Kant에 있어서 理念은 막연하게 實在 위를 표류하면서 간신히 發見的 고찰의 한 方法으로서 主觀的인 意識 内容에 不過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形而上學에서는 가장 實在의이고도 條件의 總體⁵³⁾ 였던 神이 Kant의 先驗哲學의 方法에 의하여 神은 '마치 같은' (Als-ob) 假像으로 몰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Kant에 있어서 理想은 幻想이 아니다, 理想은 비록 具體的인 理念은 아니지만 理念에 의하여 限定될 수 있는 個體的 理念이다. 그것은 가장 完全한 人間을 形成할 수 있는 性質 즉 人間性(Menschlichkeit)에 속하는 모든 理念을 포함하는 理念이며 Platon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神의 悅悟의 理念(eine Idea des göttlichen Verstandes)이다.⁵⁴⁾

Kant에 있어서 理想은 統制的原理로서 實踐的인 힘을 가지며 行爲의 完全性을 可能하게 하는 基礎가 된다. 人間은 德의 原型인 理想과 自己를 비교함으로 自己를 개선해 나간다. 그것은 곧 自己속에 있는 神의 人間(göttlichen Menschen)의 行動 바로 그것이다.⁵⁵⁾

人間안에 있는 神의 人間이란 Kant에 있어서는 道德的 法則으로서의 定言命法이자 바로 神인 것이다.⁵⁶⁾ 왜냐하면 人間안에 있는 道德法則이야말로 모든 德의 理想으로서 人間의 行爲의 不完全性을 評價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理想이란 단지 理念으로서 思惟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客觀的으로 實在한다고 생각하는데서 最高의 實在者의 概念이 發生한다.⁵⁷⁾ 그러나 이것은 Kant에 의하면 理性의 誤用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理性은 이 理念을 事物一般의 規定根據로서 근저에 둘뿐 그 自體를 客觀的 實體로 볼것을 要求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⁸⁾ 認識의 完全性을 위하여 思惟된 理念을 實在的인 存在者로 생각하는 것은 統制的原理인 理性을 構成的原理로 사용하는데 基因하는 것이다.

Kant에 의하면 理性을 이렇게 最高의 實在者라는 理念을 實體化하여 神의 存在를 推理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方式이 있다. 첫째는 存在論的證明(Ontologischer Beweis)으로

51) Ibid., 291. (B. 595).

52) Ibid., B. 370.

53) Hirschberger, S. 291~292.

54) B. 596.

55) B. 597.

56) Kant, Opus Postumum, Schmidt Ausgabe, p. 21.

57) A. 580., B. 608.

58) B. 608.

서 단순한 概念에서 最高의 原因의 存在를 推論한다. 둘째는 宇宙論的 證明 (Kosmologischer Beweis) 으로서 어떤 存在者의 無制約的 必然性에서 無制約的 實在性을 推論한다.⁵⁹⁾ 셋째는 自然神學的 證明 (Physikotheologischer Beweis) 으로서 一定한 經驗과 그 經驗에 의하여 認識되는 感性界의 特수한 性質에서 出發하여 因果性의 法則에 따라서 世界 밖에 있는 最高의 原因에까지 나가려 한다.⁶⁰⁾ 이 세가지 神의 存在의 證明은 Kant에 의하면 잘못된 理性推理에 의하여 起起된 誤謬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證明方式中 存在論의 證明이 가장 論理的으로 基礎가되고 다른 두 證明은 存在論의 證明을 基礎로하여 成立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存在論의 證明부터 살펴보겠다.

1) 存在論的 證明

存在論的 神 證明은 Anselmus, Descartes, Leibniz, Wolff, Mendelssohn을 위시하여 기타의 啓蒙主義哲學者들에 의하여 主張되어 왔다.⁶¹⁾

이 證明은 神의 本質의 分析을 통하여 必然的으로 거기에 속하는 本性으로서 神의 實在性을 推論하려 한다. 神이 最高의 實在者(das aller realitate Wesen)라면 神은 存在를 缺할 수 없다. 存在를 缺한다는 假定은 最高의 實在者의 概念과 予盾된다. 왜냐하면 모든 實在性(Realität)에는 存在(Dasein)도 포함되기 때문이다.⁶²⁾ 神은 最高의 實在者이기 때문에 神은 必然的으로 存在한다.

Kant에 의하면 이러한 存在論的 神 證明은 論理的述語 (logisches Prädikat)와 實在的述語 (reales Prädikat)⁶³⁾의 區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存在한다는 것은 論理的述語가 아니고 實在的述語며 分析判斷의述語가 아니고 綜合判斷의述語다. 절대로 完全하다는 概念은 純粹한 理性概念, 즉 理念이며 따라서 理性이 그러한 理念을 必要로 한다고해서 그客觀的 實在性이 證明되는 것이 아니다.⁶⁴⁾ 여기서 Kant가 말하고자하는 要點은 어떤 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과 생각한 것의 存在하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라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 Descartes는 主張하기를 우리가 山을 생각하면 當然히 골짜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서 山과 골짜기가 現實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Kant는 反駁한다. 그는 비유를 들어서 說明한다. 可能한 100Taler와 現實의 100 Taler는 概念으로서는 同一하지만 實在로 100Taler가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概念의으로 決定될 수 없다라고. “最高實在的 存在는 存在를 포함한다”⁶⁵⁾라는 分析判斷이 成立한다고해도 그 實在性의 定立은 綜合判斷에 의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存在論的 神 證明은 分析判斷에 의하여 神의 存在를 定立하려 한데서 誤謬가 있는 것이다.

59) B. 631.

60) B. 618.

61) Hirschberger, S. 294.

62) B. 624.

63) B. 326.

64) B. 620.

65) Kant의 이러한 思想은 可能性속에 現實性이 포함된다는 Leibniz의 思想에 대한 Kant의 反駁이라 하겠다. 여기서 觀念的 存在論의 可能性은 先天的으로 經驗속에서 認識된다는 Leibniz의 思想은 否定된다.

결국 存在論의 證明은 神의 存在에 관해서는 아무런 證明도 하지 못했으며 概念의範圍안에 머물러서 名辭의 證明에 始終했다⁶⁶⁾고 Hirschberger는 分析하고 있다.

2) 宇宙論的 證明

宇宙論의 證明은 절대 必然性과 最高 實在性을 結合시켜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 한다. 어떤 것이 實在한다면 우연적이 아닌 必然的 存在者도 實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어도 我自身은 存在한다. 따라서 절대적 必然的 存在者는 實在한다.⁶⁷⁾ 그가 곧 神이다.

이 推論의 大前提是 經驗一般에서 必然的인 것의 現存在에의 推論을 포함하며 小前提是 經驗을 포함한다.

經驗은 絶對的 必然的 存在者의 性質이 어떤 것인가를 教示할 수 없다. 理性은 經驗의 根據를 떠나서 絶對的 必然的 存在의 概念을 探究한다. 그 결과 絶對 必然的 存在는 最高完全者의 概念에서만 發見이 된다고 推論한다.⁶⁸⁾ 즉 最高 實在性의 存在의 概念은 現存在에 있어서의 絶對的 必然性의 概念을 充足한다. 이 命題은 存在論의 證明이 主張하는 바와 같다. 즉 必然的인 것을 發見하고 나아가서 神의 概念만이 이 必然性을 만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必然的인 것은 神外의 다른 것인 아니라는 것이다.

이 推論은 經驗에서 出發하여 概念으로 終結하고 있다. 왜냐하면 必然的인 存在가 神이라고 말하는 것은 本體論의 神 概念이기 때문이다.

Kant는 宇宙論의 證明이 本體論의 證明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였지만 自己를 蒼어버림으로 결국 다시 옛날의 本體論의 오솔길로 돌아오고 말았다⁶⁹⁾고 하여 이를 論駁한다.

宇宙論의 證明은 經驗에서 無制約的第一原因의 思惟하려는 일종의 因果的推論이다. 因果律은 現象界의 内部에서만 적용이 가능할 뿐 現象界를 넘어서 적용이 될 수 없다. 또 第一原因의 推論은 完結이 不可能한 無限의 系列임에도 불구하고 이 證明에서는 이 系列의 完結에 대한 理性의 自己滿足이 있다. 最高 實在의 存在의 概念은 必然的 現存在에 적합한 唯一의 충분한 概念이라고 생각하는 理性의 自己滿足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最高存在者的 理想은 理性의 統制的 原理에 의한 理念이자 現象界에서 證明되는 必然的 實在가 아닌 것이다.⁷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構成的 原理로 表象하고 그의 統一을 實體的(hypostatisch)으로 思惟하는데서 假象이 成立된다.

요컨대 宇宙論의 神存在證明에서는 最高 實在의 存在者의 理念을 經驗의 領域에 주어진 現存의 對象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이 最高 實在의 存在者는 無制約者이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理性의 統制的 原理가 悅性의 構成的 原理에 誤用되는데 그 誤謬가 있는 것이다.

66) Hirschberger, S. 295.

67) B. 632.

68) B. 635.

69) Hirschberger, op. cit., S. 296.

70) B. 647.

3) 自然神學的 證明

概念에 의한 神의 存在論의 證明도 經驗的 事實에서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한 宇宙論의 證明도 다같이 理性의 誤謬推理라는 것이 Kant에 의하여 證明되었다.

自然神學的 證明 (Physikotheologischer Beweis) 혹은 目的論的 證明 (Ontologischer Beweis)에서는 現象界에 存在하는 合目的性이나 秩序의 根據로서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한다.⁷¹⁾

Kant는 自然神學的 證明에 대하여 “가장 오래되고 가장 明晰하고 또 가장 常識과 合致하는”⁷²⁾ (Er ist der älteste meisten an gemessen) 證明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不充分하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이 證明에서 도달한 神은 全知의 主帝者가 아니고 아주 賢明한 主帝者 (Er nicht zu einen all weisen führt, sondern zur zu einen sehr weisen Ordner)다. 왜냐하면 世界는 반드시 모든 可能性을 빠짐없이 完成하지 않을뿐더러 많은 無秩序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證明이 이끌어낸 神은 世界의 創造者가 아니고 기껏해야 世界 建築家다. (Er nicht zu einen Weltschöpfer, sondern höchstens zu einen Weltbaumeister führe) 왜냐하면 이 證明은 素材의 배치를 볼뿐 素材의 創造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⁷³⁾

現存하는 世界는 多樣性·秩序·合目的性등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舞台를 전개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原因과 結果, 目的과 手段의 連鎖, 生成消滅에 있어서 合法則性을 發見한다.⁷⁴⁾ 理性은 이러한 經驗的 事實들의 觀察을 통하여 人間의 理性이 도달할 수 없는 目的과 意圖에 까지 그 적용을 확대시키며 다시 그것들의 原因을 追求함으로 마침내 最高無制約의 創始者 (oberst und unbedingten Urheber)에까지 高揚된다.

이 證明에서 비록 合理性 (Vernunft Mäßigkeit)과 有用性 (Nützlichkeit)이 認定된다해도 다른 證明의 도움이 없이 自然神學的 證明만으로 最高存在者의 實在性을 證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秩序 및 合目的에서 推論된 世界는 偶然性의 世界며 이것을 根據로 先驗的 概念에 의하여 目的과 秩序 賦與의 最高의 原因者로서의 一切의 包括的 實在者 (all befassenden Realität)를 推論한다. 그리하여 宇宙論의 證明은 결국 存在論의 證明에 基礎하기 때문이다.

神의 存在證明의 세 가지 方法중에 基礎가 되어 있는 存在論의 方法이 잘못된 以上 宇宙論의 證明은 물론 自然神學的 證明 方法도 잘못된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이하여 Kant는 理論的 立場에서 神의 實在性이 證明될 수 없다는 사실을 證明함으로 理論理性의 限界와 새로운 形而上學의 基礎를 위하여 實踐理性으로의 移行이 不可避함을 論證한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Kant에 있어서 理念의 Realität에 대한 純粹理性의 誤謬推理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理念이란 원래 주어진 被制約者에 대한 制約의 全體性 즉 無制約者의 概念으로서의 先驗的 理性概念이다. 概念이란 단지 理念일뿐 (Er ist nur eine Idea.) 결코 經驗의 對象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實在性은 理論理性의 領域에서 證明될 수 없다.

종래의 合理的 心理學과 宇宙論과 神學에서는 理念에 지나지 않은 灵魂과 世界와 神이 實在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서 誤謬를 범하게 되었다고 Kant는 論證한다.

그렇다면 理念의 實在性은 經驗의 否定되고 말것인가? Kant는 理性의 論理的 使用에 있어서는 그 實在性이 否定도 肯定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理性의 實踐的 使用에 있어서는 (im praktischen Gebrauches Vernunft) 비록 部分의 이기는 하지만 實踐的 理念이 (die Idea der praktischen Vernunft) 항상 現實的으로 具體的으로 實現된다는 것이다.⁷⁵⁾ 悟性은 理念을 認識할 수는 없지만 항상 理念에 의하여 指導된다. 그리하여 理論理性은 實踐理性의 領域으로 넘어가게 (Übergang)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여기서 Kant는 純粹理性의 理念과 道德的 理念을 綜合함으로 Heimsoeth가 지적한바와 같이 ‘實踐的 定說的形而上學’ (praktisch-dogmatische Metaphysik)을 定礎지우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Kant가 理論理性의 領域에서 先驗的 綜合判斷의 可能性과 그 apriori한 根據를 啓示으로 認識形而上學의 基礎를 마련한데 대하여 높이 評價한다. 또 Kant가 唯物論者와 經驗論者, 그리고 懷疑主義者가 아닌 입장에서 人間의 理性機能의 有限性을 認定했다는 點에서 哲學史的 意味를 認定하지는 않을 수 없다. 人間이 全智者 (Omniscience)가 아니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Kant는 그의 批判的 方法을 통하여 論證한 것이다.

理論理性의 領域에서 人間의 理性의 有限性을 認定한 Kant는 그러나 實踐理性의 領域에서는 有限하면서도 無限을 向한 實踐的 行爲와 人間의 道德的 意志와 立法能力에서 絶對者가 되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人間은 비록 世界의 創造主는 아니지만 그러나 世界와 自身에게 法則을 賦與하는 立法者이자 동시에 實踐理性의 領域에서는 理性의 自己立法인 無上命法에 自由意志에 따라서 順從함으로 自律的 遵法者가 된다. 그리하여 人間은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手段이 아닌 目的自體로서 存在해야 한다.

결국 Kant의 先驗哲學의 體系에 있어서 理念의 實在性 특히 神의 � 實在性은 理論理性의 領域뿐 아니라 實踐理性의 領域에 있어서도 對象의 으로 (物質的인 對象이 아닌 灵的 人格的 對象으로서) 實在하는 것이 아니고 實踐的인 行爲를 통하여 實現해나가는 過程 그 自體에 있는 것이다.

71) B. 651.

72) B. 655.

73) B. 650.

74) Ibid., S. B. 385.

參 考 圖 書

-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Der Philosophischen Bibliothek Band, Felix Meiner Hamburg, 1956.
-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Der Philosophischen Bibliothek Band, Felix Meiner, 1952.
-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 Kant, *Grantsbegriff und Weltidee* in Kant's Opus Postumum, Kant-st, 41(1936).
- Heimsoeth, *Personalichkeits bewusstsein und Ding an sich in der Kantischen Philosophie* (Immanuel Kant Festschrift hrsg, von der Albertus-Universität), 1924.
- H. J. Paton,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New York, Humanities Press Inc, 1970.
- J.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Verlag Herder Freiburg, 1955.
- 金鎔貞, *Kant哲學研究*, 儒林社, 1978.
- 崔逸雲, *批判哲學의 批判*, 營雪社, 1974.
- 今谷逸之助, *カソト純粹理性批判研究*, 三和書房
- 高坂正顯著作集 第二卷, 理想社
- 岩崎武確著作集 第二卷, *カントとドイツ觀念論*, 新地書房, 1981.

神學과 哲學에 있어서의 眞理의
概念에 對한 比較研究

李 保 民 *

◆ 目 次 ◆

序 言

- I. 世俗哲學에서의 眞理: 全包括的 參考點 (the All-Enclosing Reference Point) 으로서의 진리.
- II. 기독인은 전포괄적 참고점에서 解放되었는가?
- III. 전포괄적 참고점이 없는 진리.
- IV. 더 높은 次元에서의 진리의 概念: 진리에 대한 聖經的 개념.

序 言

眞理의 概念에 대한 理解가 重要한 것은 모든 學問들이 나름대로 바로 그 진리를 追求한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問題는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또는 진리追求 행위가 어떤 本質을 지니는 행위냐는 점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비기독교적 哲學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진리를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추구하였으며, 그것과 다른 우리의 진리추구는 무엇이어야 함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방대한 문제는 학자마다 전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세속철학에서의 진리추구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本論者는 비슷한 연구를 반복할 필요 없이 세속철학에서의 진리개념의 연구에 있어서는, 화란 신학자 J. H. Vrielink의 책 *Het Waarheidsbegrip (The Notion of Truth)*에서의 논리 展開를 소개하고자 하였고, 그 후 거기에서 파악되는 不信者的 진리추구의 문제를 分析해 보면서 神學的 진리추구의 본질을 나름대로 규명함으로서 본 논문을 끝 맺고자 하였다.

*助教授